

전남 서부권

목포 경관조명 당분간 못본다

市 '전력비상' 에너지 대책 동참키로

목포의 상징인 유달산과 고하도, 평화광장을 휘황찬란하게 밝혔던 경관 조명을 당분간 볼 수 없게 됐다. 목포시는 정부의 에너지 관리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비상상황인 국가 전력수급 체계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경관조명을 모두 끄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동안 유달산과 고하도 경관조명을 켜기로 한 계획을 취소했다. 하지만 전력소모가 적은 LED 조명 시설과 방법예방 차원에서 운영중인

빛 조형물과 삼학도, 자연사박물관, 문화예술회관, 갯바위 해상공원, 광장주변 수목조명 등은 변함없이 점등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향후 에너지 수급상황에 따라 에너지 위기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에너지 절전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그동안 유달산과 고하도 경관 조명은 관광객에게 불거리를 제공하고자 매주 금~일요일 3일간 일몰후부터 자정까지 켜 왔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신안군청 43년 더부살이 청산 압해도 새 보금자리 4월 이전

신안군이 43년만에 목포 더부살이를 끝내고 행정 구역 내에 마련한 새 보금자리로 오는 4월 이전한다. 신안군은 목포와 연륙된 압해도 신청사 건립사업이 다음달 완공 예정으로 90%의 공정을 숙에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라고 6일 밝혔다. 신청사는 260여실을 들어 4만1513㎡ 부지에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되며 전산망 시험운전 등을 거쳐 오는 4월 개청할 계획이다. 압해도 신청사로 옮겨가면 지난 1969년 무안군에서 신안군으로 분군(分郡)된지 43년만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셈이다. 1004개의 섬으로 형성된 신안군은 분군 이후 목포 북교동에 현 청사를 마련하고 1990년대까지 증축 등을 했지만, 낡고 비좁아 불편을 겪었다. 신안군 관계자는 "교통의 요충지인 압해도 신청사가 개청하면 군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등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기기자 wncho@

'마플로'

진도올금 브랜드 출시

진도올금 향토산업단이 최근 올금 공동 브랜드 '마플로'를 출시했다. 6일 진도군에 따르면 마플로는 스페인으로 바다를 뜻하는 '마'와 꽃을 뜻하는 '플로'를 합친 말로 사면이 바다인 진도에서 생산된 진도 올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만든 공동 브랜드다. 군은 마플로 시제품 홍보를 위해 휴대용 올금환(丸)과 식당용 올금 분말, 팥플링 등을 도내 식당과 관공서 등에 비치하고 이달 말까지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진도 올금은 향암과 향균, 향산화, 향염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진도 올금 재배면적은 지난 2007년 10ha에서 매년 10ha씩 늘어 올해는 44.5ha로 증가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360여t을 생산해 생뿌리와 분말, 비누 등의 형태로 팔아 매년 80여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도란도란 부추밭에 봄 오는 소리~

해남군 북이면 농민들이 최근 시설하우스에서 겨울철 고소득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부추를 수확하고 있다. 하우스 부추는 한번 파종하면 3~4년 정도 연속 재배할 수 있으며, 겨울철 기준으로 40일이면 재수확이 가능하다. <해남군 제공>

완도 올 인구감소 제로화 도전

郡, 고용창출 등 '인구 늘리기 5개년 계획' 수립

인구 6만명선이 무너진 완도군이 올해 인구감소 제로(Zero)화에 도전한다. 완도군은 인구 6만명 회복을 목표로 5개 분야·27개 과제를 뼈대로 한 '인구 늘리기 5개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매년 1100여 명의 인구가 감소해 인구 5만명선 붕괴 위기를 맞았지만, 지난해 32명만이 감소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군은 올해 인구감소 제로화를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군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민선 5기 동안 기업 30개, 2000억 원 투자유치를 목표로 올해는 7개 기업, 392억원으로 105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 '청해진 전원타운' 조성 등 도시민 유치와 귀농인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소득 기반 확충에도 행정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양육비 지원 등 출산장려와 인재육성 정책도 적극적으로 펴 인구 유출을 막을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말 완도군 인구는 5만 4269명으로 집계됐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진도에 '진돗개 마을 기업' 郡, 체험관광 등 수익 창출

동물 자원으로는 전국 최초로 진도에 진돗개 마을 기업이 생긴다. 진도군은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돗개를 활용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진돗개 마을 기업 시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2개의 시범 마을을 설립할 예정으로 최근 사육농가와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돗개 마을 기업 추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설립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진남대 진돗개명견화사업단' 주관으로 열린 설명회에서는 ▲강아지 판매 ▲각종 체험관광 프로그램 진행 ▲수제 애견용품 제작·판매 등의 방안이 발표됐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진돗개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한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해남 장애인 공동가정 '선재의 집' 개소

해남에 지적장애우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예행연습을 할 수 있는 공동생활 가정이 생겼다. 6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을 구교로 마아파트에 공동생활가정 입주자 4명을 비롯해 보호자, 사회재활 교사 등 20여 명이 모여 사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선재의 집'이 마련됐다. '선재의 집'은 해남군 최초의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자활 품앗이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입주자는 학교, 직장, 복지관 중 한 곳을 다니는 18세 이상 지적 장애인

으로 아침, 저녁 식사를 '선재의 집'에서 스스로 해결하면서 개인위생, 가사관리 등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인관계 형성과 금융기관 이용 등을 통해 사회생활 능력을 키우게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역 내 지적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전 북

군산항 유연탄 부두 7월 착공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던 군산항 유연탄 부두가 오는 7월 착공된다. 6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최근 '군산항 유연탄부두 축조공사'를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대상사업으로 공고함에 따라 다음달 업체를 선정하고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비관리청 항만공사'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투자비를 보전해주는 공사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군산항만청은 460억원을 투입해 1개 선석(240m)을 비롯한 보관 및 하역시설을 오는 2014년까지 갖추기로 했다. 군산항만청은 이달 시행자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달안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시행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군산항만청 관계자는 "환경단체에서 분진으로 말미암은 환경피해를 지적하는 만큼 보관시설과 분진 방지 시설 등을 친환경적이고 최첨단 시설로 설치해 환경훼손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도내의 유연탄 소비처는 군장에너지(주)와 페이퍼코리아(주), 휴비스(주), 전북에너지서비스 등으로, 2012년에는 유연탄 199만5000t, 2015년에는 269만7000t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문화향 넘쳐 더 깊어진 '한옥마을'

전주시, 소리·부채·완판본 문화관 상반기 잇따라 개관

소리문화관, 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등 전주시가 한옥마을 일대에 건립한 전통 문화시설들이 상반기에 잇따라 문을 연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한옥마을로 옮겨 지은 조선시대 동헌(東軒)과 80년 된 한옥을 다음달부터 일반에 개방한다. 동헌은 조선시대 전주판관(현 전주시장)의 집무실로, 일본 강점기인 1934년 매각과 안주군 구이면 덕천리로 옮겨졌다가 2008년에 전주시에 기부돼 최근 한옥마을에 복원됐다. 한옥은 1932년에 김제에 세워진 독립운동가 장현식 선생의 집으로 후손이 전주시에 기증해 동헌 옆으로 옮겨졌다. 이들 건물은 앞으로 각종 국내외 회의와 연수, 한옥체험, 숙박을 함께 하는 전통문화시설로 활용된다. 또 다산 정약용 선생의 리더십과 조항말 유학자인 간재 전주(1841~1922)선생의 사상 등에 대한 특강과 전통문화 캠프도 진행된다. 한옥마을의 소리문화관, 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등 3대 문화관이 다음달부터 민간위탁 절차를 밟아 상반기 중에 개관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군수님은 방역중

강인형 순창군수와 직원들이 지난 5일 군 관문인 순창 IC 초소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도 연휴기간 동안 직원들의 연일 이어지는 방역초소 근무를 대신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익산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내달 출범

익산에 조성 중인 국가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다음달에 출범한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기관인 국가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최근 실무직원 3명을 채용한 데 이어 센터장과 비상임 이사 등의 후보자 10여명을 선정했으며 이달 3월 출범할 계획이다. 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전까지 과전에 사무실을 두는 지원센터는 ▲국가 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 집적화에 관한 정책개발과 연구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관리 ▲참여기업과 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한다. 한편 국가 식품클러스터 사업은 2010~2015년 총 8082억원을 투입 익산 왕궁면에 400ha 규모의 산단을 조성하고 이곳에 국내외 식품기업 100여개와 연구소 10여개 등을 유치하려는 사업이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Table with 2 columns: Organization Name and Phone Number. Includes 光州日報 전북취재본부, 군산 박금석 국장, 전주 김철수 국장, 김용철 기자, 정읍 박기섭 국장, 익산 류정영 부국장, 순창 이동희 부장, 남원 백 선 차장, 김제 홍운선 기자, 부안 윤길호 기자, 고창 김용철 기자, 임실 서은중 기자.

전주·완주 혁신도시

초·중·고 4개교 신설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과 완주군이 서면 일대에 조성되는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등 4개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전북도교육청은 혁신도시 입주주민의 편의를 위해 오는 2016년까지 초등 2개교와 중·고등학교 각 1개교 등 총 4개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014년 3월, 고등학교는 2015년이나 200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해당 학교에 교사 초빙권과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주는 혁신학교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단 신

어린이 예절교육 산실 '정읍 남고서원'

조선시대 성리학자 일재 이항(1499~1576) 선생이 후진을 양성했던 정읍시 북면 남고서원이 어린이 예절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고서원은 지난 2004년부터 전통예절과 다도(茶道)·민요 등을 교육하는 '남고학당' 프로그램을 실시, 현재까지 23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올해도 1월 '남고학당' 운영에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한복입는 법과 세배하는 법 등을 교육해 아이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활성화 방안 공모

남원시는 오는 25일까지 시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춘향테마파크' 활성화 방안을 공모한다. 공모내용으로는 수확여행단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벤트와 체험활동 등을 비롯해 ▲시설활용 방안 ▲향후 투자방향 ▲민간참여 행사 등이다. 지난 1995년 개장된 '춘향테마파크'는 그동안 이벤트 부족 등으로 침체하면서 매년 관람객이 감소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새만금 방조제내 부안 특산물 판매장 개소

새만금 1호 방조제 시작점인 새만금 임시홍보관 옆에 부안 특산물 전시판매장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부안군 민간사업자 공모로 선정된 뽕나무 영농조합법인(대표 박미숙)은 내부시설과 특산물 전시 등 입점 준비를 마치고 관광객들에게 뽕 가공식품과 개암 죽 등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고 있다. 박미숙 대표는 "새만금방조제 도로 개통으로 특수를 맞은 1000만 관광객을 상대로 부안군 특산품을 대대적으로 판매·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윤길호기자 y2011@

김제 진봉면 의용소방대 복지시설에 위문품

설 명절을 맞아 김제시 진봉면 관내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졌다. 김제시 진봉면 의용소방대(대장 최규갑)는 최근 관내 경로당 37개소를 방문해 노인들을 위문하고 각 골 1상자(50만원 상당)씩을 전달했다. 진봉면 출신 출향인 이규창씨는 쌀 20kg 13포(40만원 상당)를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며 기증했으며, 인향교회(담임목사 황선량) 역시 성금 50만원을 기탁했다. /전북취재본부=홍운선기자 hnews@